서산시 '가톨릭성지 세계화 사업' 우려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 위한 정부예산 7억원 배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교황청 선정 국제성지 승인 후
추진계획 수립 · 내년 본격 추진
순교터에 공원 · 압송로 복원도
"가톨릭신앙 도 넘은 사업화"
지역 연계방안 모색한다지만
'구색 맞추기' 전략 우려 시각



맹정호 서산시장은 올 9월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사진=서산시

해미읍성 가톨릭성지화에 200억 원대 예산을 책정하고 '교황방문도시'로서의 도 넘은 홍보정책으로 종교편향 논란이 일었던 서산시가, 또다시 가톨릭성지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산시 측은 가야산 불교문화 등 지역유산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성지의 지역대표 브랜드화'를 공언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마스터플랜 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7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해미국제성지의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화'에 나선다. 서산시에 따르면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추진안은 4개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순교성지와 연계한 해미역사공원 조성, 내포지역 가톨릭성지 · 명소들을 연결한 해미국제성지 순례길 등이 주요사업으로 추진된다.

해당사업은 "해미국제성지를 평화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세계인과 나눌 수 있는 화합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맹정호 시장이 지난 9월 14일 직접 발표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과거 참수형터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순교자 압송로를 복원해 기존 가톨릭순례길에 포함시키는 등 가톨릭신앙에 토대를 둔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해미역사공원은 해미국제성지 앞 가톨릭 박해 당시 참수형터로 알려진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순례길은 내포지역 내 가톨릭명소들을 연계한 코스에 IT기술과 스토리텔링 기법을 결합한 순례길로 추진된다. 특히 순례길은 기존 가톨릭순례길의 종점구간인 세계청년문화센터부터 해미읍성을 거쳐 해미국제성지 내 진둠벙(순교자들이 수장됐다고 알려진 연못)까지 이어지는 1.7km구간으로, 순교자의 압송로를 현대에 맞게 복원하는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미국제성지 선포식은 물론, 세미나를 통한 역사복원과 체험, 성지정비, 홍보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미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미국제성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등록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순교자묘와 진둠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는 "종교편향 논란을 의식한 듯 가야산 불교유산 등 다른 종교와 연계한 문화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협력과 조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사업계획 자체가 가톨릭신앙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색맞추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서산시는 백제문화권으로 불교유산이 산적해 있는 곳으로, 지자체 주도의 과도한 성지화가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덮어씌우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산시는 해미읍성 뿐 아니라 국보 제84호 서산마애삼존불상과 무학대사가 창건한 간월암, 전통사찰인 부석사와 개심사, 보원사지 등 문화유적이 분포돼 있다.

서산지역의 한 사찰 주지스님은 "서산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톨릭성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너무 과도하게 종교색을 띄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자체가 성지화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며 "'순교'라는 행위가 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종교적 환희심을 주겠지만, 이를 복원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뒤덮을 정도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미국제성지는 1800년대 천주교 박해 당시 132명의 순교자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11월 교황청에 의해 국제성지로 지정됐다.

종단협, 종교편향 대응 위한 '범종단대책위' 결성

종단협, 12월 8일 이사회서 결의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 밝혀
'기후위기 대응' 확대로 불교 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종교편향 사안과 관련해 앞으로 불교계 각 종단들이 '범종단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대응키로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월 8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5번째 안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종교편향_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_캠페인 관련 논의의 건'을 상정했다.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기후위기 문제는 물론, 종교편향 등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들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사회에 앞서 진행된 차담을 통해 앞으로 불교계가 이런 사안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입장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스님은 "오늘 이사회에서 종교편향과 불교폄훼 사안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은 "문체부가 사과를 했지만 종단협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부의 지속적인 편향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종교편향 사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종교편향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계종 사회부와 대책위원회가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단협이 연대 여부를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전면적인 대응은 다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분리대응을 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종교편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큰 사건이 터질 때까지 불교계가 이를 등한시 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불교의 위상과 역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범종단 차원에서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종단협 소속 종단들이 연대한 '범종단대책위원회' 결성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2년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종단협은 올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거나 중단됐던 사업을 일부 재개할 예정이다. 신년하례법회는 1월 18일 봉행할 예정이며, 2022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AW컨벤션센터에서 진행키로 했다. 송지희 기자

제6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에 도심 스님

원행 스님, 12월8일 임명
만당 스님 등 위원 위촉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제6기 위원장에 도심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도심 스님을 종평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직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사진〉

위원에는 종회의원 만당 스님과 지우 스님,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장 수경 스님,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원행 스님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종교편향 문제를 잘 해결해 좋은 쪽으로 봉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런 문제는 추후 대응보다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최근 논란이 된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캐럴 캠페인은 문체부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천주교와 개신교 등과 함께 지상과 라디오와 매장 등을 통해 캐럴 재생을 활성화하는 운동으로, 불교계에서는 문체부가 특정 종교 음악을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편향적 행정이라며 논란이 일었다.

원행 스님은 "최근 7대 종교 대표 중 일부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가 천주교를 대신해 공식 사과를 했다"며 "불교계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원활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평위원장 도심 스님은 "각종 사안을 세심하세 살피겠다"며 "종단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교평회위원회 위원에는 당연직으로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 포교부장 선업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영석 조계종 포교사단장이 함께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법화종 혜문 스님, 종단협 임원 선임

12월 8일 임원변경의 건 통과
안정적인 대외활동 토대 구축



장기화된 종단 내홍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임원자격에도 논란을 빚었던 법화종이, 현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사진〉의 종단협 이사 선임을 통해 안정적인 대외활동의 토대를 구축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12월 8일 제3차 이사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법화종 총무원장 변경에 따른 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단협 이사는 前 법화종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에서 현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으로 최종 변경됐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37명 중 출석 32명 위임 5명으로 성원됐다.

종단협이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을 이사로 선임한 것은, 그동안 내홍으로 위태로웠던 법화종이 대외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했음을 방증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법화종은 상임이사 종단으로 의전서열 12위였으나 前 총무원장의 법정구속 이후 장기화된 내홍으로 지난해 의전서열 29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혜문 스님은 임원 선임 이후 인사말을 통해 "현재 종단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총무원장 서리로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총무원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법화종 내부 문제로 일부 혼란을 빚은 점에 대해 회원 종단 스님들께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 종단 안정은 물론, 실추된 종단 위상을 회복하고 나아가 종단협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화종 前 총무원장 당선자 거암 스님은 총무원장 자격논란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단 대표자로서 활동을 일체 보류한다"는 종정교시를 무시한 채 종단협 이사 임명을 신청하는 등 사실상 월권행위로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송지희 기자

불사용품 전문기업
금륜사
30년 축척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 서비스로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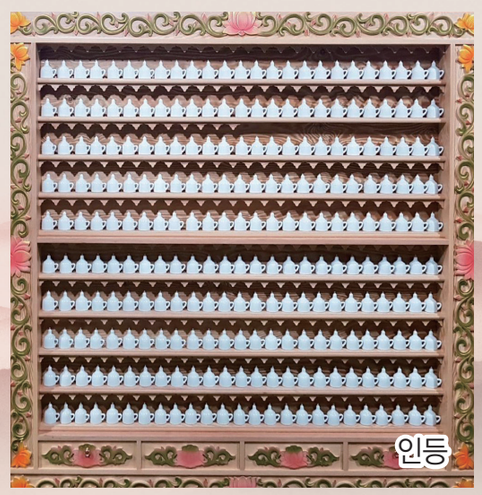

수미단 · 닫집



영단


윤장대 · 인등


인등


인등


인등 시공사례